

## '다저스 입단' 푸홀스 "나의 탱크에 아직 연료가 남아있다"

등록 2021.05.18 09:20:24



[서울=뉴시스] LA 다저스 유니폼 입은 알버트 푸홀스. (사진 = 다저스 구단 공식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메이저리그(MLB) LA 에인절스에서 방출된 뒤 LA 다저스와 계약하며 현역 연장 기회를 잡은 강타자 알버트 푸홀스(41)가 자신감을 드러냈다.

푸홀스는 18일(한국시간) 다저스 입단 기자회견에서 "다저스에 와서 흥분된다. 이 팀이 올해 우승반지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푸홀스는 "아직 나의 탱크에는 연료가 남아있다고 느낀다"며 좋은 활약을 펼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출전 시간이 다저스를 선택한 이유가 아니라고 강조한 푸홀스는 다저스가 원하는 역할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푸홀스는 "팀에 대타든, 1루수든 원하는 역할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올 시즌 목표가 주전 1루수로 뛰는 것이 아니다. 출전 시간이 다저스를 선택한 이유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상대 팀으로 다저스를 상대해왔다. 이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 그것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다저스는 이날 푸홀스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다저스는 푸홀스 외에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방출된 일본인 타자 쓰쓰고 요시토모와도 계약했다.

코디 벨린저, 코리 시거, A.J.폴락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한 다저스는 이들의 공백을 메우고자 푸홀스와 쓰쓰고를 영입했다.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푸홀스는 2001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빅리그 무대를 밟았고, 내셔널리그 신인왕을 차지하며 화려한 출발을 했다. 2005년과 2009년, 2010년에는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통산 667홈런 2112타점을 올린 푸홀스는 명예의 전당 후보로 꼽힌다.

하지만 2012시즌을 앞두고 에인절스로 이적한 푸홀스는 3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내리막을 걸었다. 60경기 체제로 치러진 지난 시즌 타율 0.224, 6홈런에 그쳤다.

올 시즌 경기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던 푸홀스는 24경기에서 타율 0.198 5홈런 12타점으로 부진했고, 결국 지명 양도 처리됐다.

일주일 동안 그를 원하는 구단이 나타나지 않아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 된 푸홀스는 다저스와 계약을 하면서 현역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푸홀스는 에인절스에 나쁜 감정이 없다면서 "에인절스나 다른 누구에게 뭔가를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그라운드에서 나가 경기를 할 뿐이고, 야구를 사랑하고 즐길 뿐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